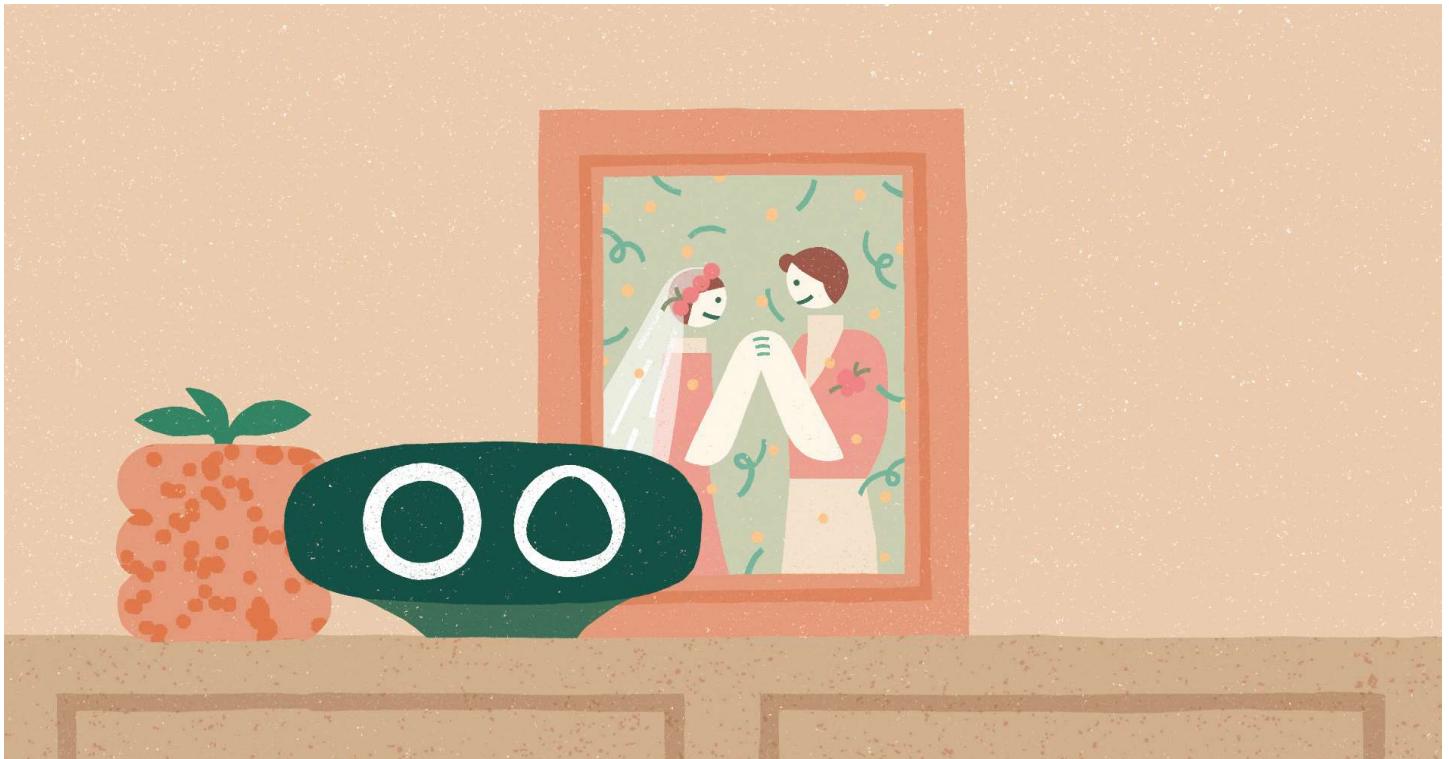


곡면의 열방정식 [2]: 위상 변화와 흐름의 운명

2021년 7월 8일

최경수



특이점의 모습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

10여년 전 여름 녹음이 우거진 교정을 거닐다 선생님께서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. “나뭇잎의 잎맥은 양분을 수송하기 적합한 형태로 형성되는데, 그 형태는 주변 환경에 맞추어 형성된 것일 수도,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된 것일 수도 있지. 이러한 현상을 미분 방정식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겠니?” 그리고는 연구실로 돌아가 잎맥의 형태에 따른 양분의 수송에 필요한 거리를 범함수로 사용하여 방정식을 설계하셨던 것 같습니다. 물론 학부생이었던 저는 그 질문을 연구로 이어갈 능력이 없었고, 기억의 저편에 묻어 두었습니다.

이전 글 [“곡면의 열방정식 \[1\]: 에너지가 줄어들면 단순해진다”](#)에서 줄어드는 곡선 흐름은 닫힌 곡선을 둉근 점으로 수렴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초기에 주어진 곡선을 주어진 환경에, 흐름을 유전 정보에 빗대어 생각해보면, 이 흐름은 주어진 환경과 관계없이 닫힌 곡선으로 탄생함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 소멸할지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곡선의 곡률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$$\frac{\partial}{\partial \tau} \kappa = \frac{\partial^2}{\partial s^2} \kappa + \kappa^3.$$

흐름에 따라 곡선이 줄어들면 곡률 κ 가 증가하고, 위의 방정식은 우변의 κ^3 에 의해 지배됩니다. 따라서 초기에 어떤 정보를 주든 유한한 크기의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, 소멸하는 순간 무한대로 발산하는 곡률이 미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영향력이 곡선을 둥글게 만들어버립니다. 이처럼 곡률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시공간 점을 특이점^{singularity}이라고 부르는데, 평균 곡률 흐름 역시 특이점에서의 움직임은 방정식에 내재한 성질에 따라 주로 결정되며, 초기 곡면의 모습에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.

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시간이 T 로 접근함에 따라 원점으로 둥글게 수렴하는 볼록하고 닫힌 줄어드는 곡선 흐름 Γ_t 를 관찰하겠습니다. 먼저 무한대로 발산하는 곡률을 제어하기 위해 확대한 흐름 $\tilde{\Gamma}_t =: (T-t)^{-\frac{1}{2}} \Gamma_t$ 를 생각합니다. 곡선을 확대하면 휘는 정도가 완만해지므로 곡률도 줄어듭니다. 실제로 확대한 흐름의 곡률이 일정한 상한과 하한을 가지는 것이 [5] 증명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시간은 늘어뜨리지 않은 채 공간만 확대하였기에, 위의 확대된 흐름의 위치 벡터 $\tilde{\gamma}$ 가 만족하는 방정식

$$\frac{\partial}{\partial t} \tilde{\gamma} = (T-t)^{-1} \frac{\partial^2}{\partial s^2} \tilde{\gamma} + \frac{1}{2}(T-t)^{-1} \tilde{\gamma}$$

은 일반적인 미분방정식 이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.¹ 따라서 새로운 시간 매개 변수 $\tau = -\log(T-t)$ 를 도입하여 조정된 줄어드는 곡률 흐름 rescaled curve shortening flow $\bar{\Gamma}_\tau =: \tilde{\Gamma}_t$ 을 정의하면, 조정된 위치 벡터 $\bar{\gamma}$ 는 아래의 깔끔한 방정식을 만족합니다.

$$\frac{\partial}{\partial \tau} \bar{\gamma} = \frac{\partial^2}{\partial s^2} \bar{\gamma} + \frac{1}{2} \bar{\gamma}$$

¹ 우변의 계수 $(T-t)^{-1}$ 이 무한대로 발산하여, 열방정식을 비롯한 일반적인 포물형^{parabolic} 미분방정식들과 너무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.

² 정확하게는 시간에 대한 L_{loc}^1 값이 수렴합니다.

³ τ_i 가 발산하는 임의의 곡면열 M_{τ_i} 은 수렴하는 부분 곡면열을 가지는 것을 보일 수 있고, 그 부분 곡면열의 극한 곡면이 위의 방정식을 만족합니다.

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간 t 가 특이 시간^{singular time} T 에 접근할수록, 새로운 시간 매개 변수 τ 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입니다. 이는 곡률의 영향력을 유한한 크기로 제한하기 위해 시공간을 확장시키면서, 특이 시간이 무한히 멀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초기에 어떤 곡선에서 시작하더라도, 적합한 시간 매개 변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득히 먼 시간이 흘러야 특이 시간이 찾아오므로, 초기 곡선의 모양이 특이점의 모양에 영향이 미치기 힘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이제 $(x_0, t_0) \in \mathbb{R}^{n+1} \times [0, +\infty)$ 에서 특이점을 발현하는 평균 곡률 흐름 M_t 를 위의 시간 매개 변수 $\tau = -\log(t_0 - t)$ 를 이용하여 조정된 평균 곡률 흐름^{rescaled mean curvature flow} $\bar{M}_\tau =: (t_0 - t)^{-\frac{1}{2}}(M_t - x_0)$ 를 생각해보겠습니다. 먼저 매개 변수 τ 는 위와 같이 무한 시간까지 존재합니다. 그리고 후이스肯 교수님의 단조 감소 공식[6]은 아래와 같이 다시 적을 수 있습니다.

$$\frac{d}{d\tau} \int_{\bar{M}_\tau} e^{-\frac{|\mathbf{x}|^2}{4}} d\mathcal{H}^n(\mathbf{x}, \tau) = - \int_{\bar{M}_\tau} |\Delta_g \mathbf{x} + \frac{1}{2}\mathbf{x}|^2 e^{-\frac{|\mathbf{x}|^2}{4}} d\mathcal{H}^n(\mathbf{x}, \tau) \leq 0. \quad (*)$$

그런데 수정된 넓이 $\int_{\bar{M}_\tau} e^{-\frac{|\mathbf{x}|^2}{4}}$ 는 항상 양수이므로, τ 가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우변은 0으로 수렴해야합니다.² 따라서 조정된 흐름은 위치 벡터가 방정식 $\Delta_g \mathbf{x} + \frac{1}{2}\mathbf{x} = 0$ 을 만족하는 곡면으로 수렴합니다.³ 이때,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곡면은 모두 자가수축자self-shrinker라고 부릅니다. 왜냐하면 임의의 자가수축자 \mathcal{N} 의 모양을 유지하며 크기만 줄이는 흐름 $N_t = (1-t)^{\frac{1}{2}}\mathcal{N}$ 은 그 자체로 평균 곡률 흐름이기 때문입니다. 결국 평균 곡률 흐름 역시 특이점에서의 모습은 자가수축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.

위상 변화는 특이점을 만들고, 특이점은 위상 변화를 부른다

⁴ 위의 아령 모양의 곡면을 포함하는 3차원 공간에 제4의 축을 세워 4차원 공간을 생각합니다. 그 후, 아령을 길게 관통하는 장축을 제4의 축을 지나게 회전 시켜 얻는 초곡면에서 시작하는 평균 곡률 흐름은 중앙의 특이점에서 반으로 갈라지지 않고 둥그런 구멍이 파입니다.

⁵ 완전하고complete 옹골찬compact

⁶ 고차원의 경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잘리지 않고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.

둥근 구와 같은 자가수축자는 한 점으로 수렴하며 특이점을 발생시키는데, 특이점을 지나면 사라지므로 위상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이점을 지난다고 흐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
예를 들어 이전 글 “곡면의 열방정식 [1]: 에너지가 줄어들면 단순해진다”에서 이야기한 아령 모양 곡면의 경우, 손잡이 중앙이 무게 추 부분보다 빠르게 줄어들어서 하나의 특이점이 발생합니다. 그 후 특이점을 중심으로 두 개로 갈라진 흐름은 각자 둥근 점으로 수렴합니다. 이처럼 흐름은 특이점을 지나 사라지거나 갈라지며, 4차원 이상에서는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.⁴ 이렇게 곡면이 소멸하거나, 갈라지거나, 구멍이 뚫리는 등 위상이 변화한다면 변화의 순간 곡률이 발산해야 하므로 특이점이 발생합니다.

한편, 흐름은 특이점에서 반드시 위상이 변화합니다. 특이점에서 관찰되는 자가수축자가 닫혀 있다면 흐름도 닫힌 closed⁵ 자가수축자처럼 한 점에서 소멸될 것입니다. 자가수축자가 무한히 큰 경우는 위의 아령 모양 곡면의 경우를 관찰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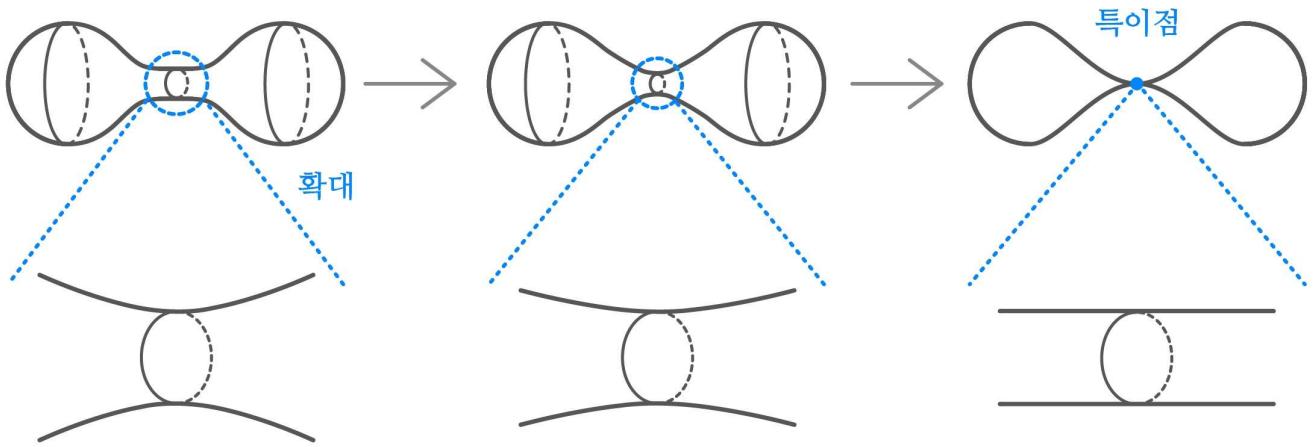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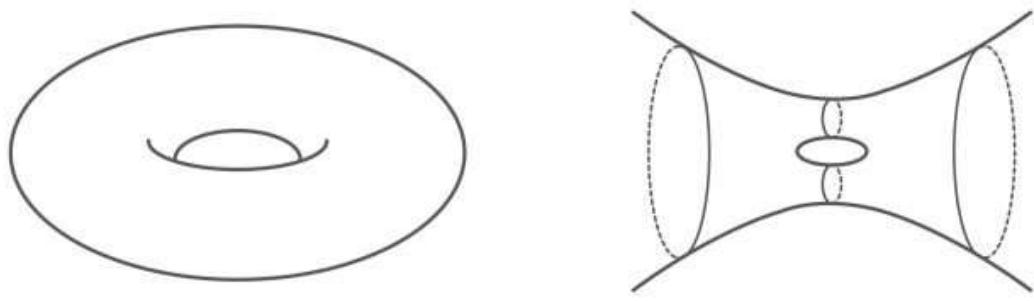


그림1

최경수 제공, MIMONG

[그림1]과 같이 아령의 경우 손잡이 중심으로 조정된 흐름이 무한히 긴 둥근 원통으로 수렴합니다. 재미있는 점은 무게 추 부분은 원점으로부터 무한히 멀어져서 극한 곡면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. 즉, 특이점에서 발견되는 자가수축자가 무한히 크다면, 특이 시간에 특이점이 흐름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특이점에서 아령의 손잡이처럼 흐름의 일부가 한 점에서 유착된 후 잘려 나갑니다.⁶

따라서 특이점의 모양을 모두 분류한다면 흐름에 의해 곡면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우옌 Phu X. Nguyen 교수님께서 자가수축자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증명하였고[9], 이를 근거로 임의의 특이점을 지나는 흐름을 통하여 위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


Angenent torus

수치해석을 이용하여
예상한 Chopp의 자가수축자

그림2 자가수축의 예

최경수 제공, MIMONG

위상 수학을 위한 기하학적 흐름의 목표

이제 위상 변화 관찰을 위해 기하학적 흐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아래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연재글

곡면의 열방정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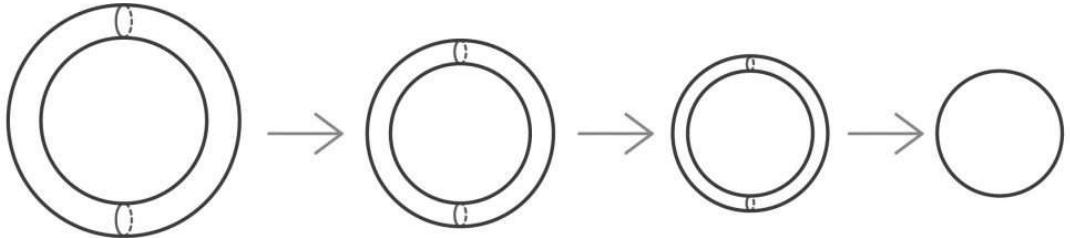
1. 에너지가 줄어들면 단순해진다
2. 위상 변화와 흐름의 운명

첫 번째 문제는 불안정 특이점 회피 이론의 정립입니다.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흐름이 특이점을 갖지만, 그 흐름의 초기 곡면과 매우 유사한 곡면에서 시작한 흐름이 원래의 특이점과 같은 모양의 특이점을 갖지 않는다면, 이를 불안정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. 이 이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의의 곡면이 주어졌을 때, 이와 매우 유사한 어떤 곡면에서 시작한 흐름이 둥근 구와 둥근 원통만을 특이점의 모양으로 가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. 이렇게 초기 곡면과 유사한 곡면에서 시작하는 흐름을 일반적인 평균 곡률 흐름 generic mean curvature flow이라고 부릅니다. 선택된 곡면은 주어진 곡면과 같은 위상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흐름으로 위상을 연구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. 3차원 회피 이론은 작년에 큰 발전이 있었고[1,2], 이론이 4차원으로 가능성성이 높아 보입니다.

리찌 흐름의 경우 페렐만 교수님께서 임의의 닫힌 3차원 다양체에서 시작한 리찌 흐름은 둥근 구와 둥근 원통만을 특이점의 모양으로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여[10] 푸앵카레 추측을 증명하셨습니다. 하지만 4차원 리찌 흐름의 경우에는 평균 곡률 흐름과 같이 자가수축자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불안정 특이점 회피 이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두 번째는 일반적인 특이점 고립 이론의 정립입니다.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예제들은 모두 특이점이 고립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무한히 많은 특이점이 발생하여 특이점이 고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얇은 반지 모양에서 시작한 흐름은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원으로 수렴합니다.

Marriage ring



Perturbed r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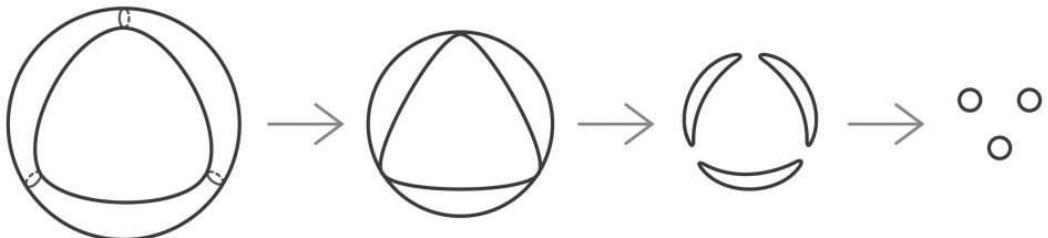


그림3 상 Marriage ring 하 Perturbed ring

최경수 제공, MIMONG

이 흐름을 결혼 반지^{marriage ring}라고 부르는데, 결혼 반지는 특이 시간에 관찰되는 원 위의 모든 점이 특이점입니다. 그리고 각각의 특이점에서 조정된 흐름은 모두 둥근 원통으로 수렴합니다. 이 예제의 경우는 특이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동시에 사라져버리지만, 셀 수 있는 무한 개의 특이점이 발생한다면 흐름이 무한 개로 나누어져 위상을 분석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. 따라서 주어진 곡면에서 시작한 흐름 대신 유한개의 특이점만을 가지는 일반적인 흐름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.⁷

⁷ 사실 3차원 경우 둥근 구 S^2 와 둥근 원통 $S^1 \times \mathbb{R}$ 모양의 특이점만 발생한다면 특이점을 고립시키지 않아도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4차원 역시 S^3 와 $S^2 \times \mathbb{R}$ 모양의 특이점은 고립시키지 않아도 다를 수 있으나, $S^1 \times \mathbb{R}^2$ 모양의 특이점이 무한히 많이 발생한다면 다루기 어렵습니다.

세 번째 특이점을 지나는 흐름이 잘 존재^{well-posed}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흐름은 미분 방정식의 해인데 특이점에서 곡률이 발산해서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. 즉, 특이점을 지나는 흐름이 존재한다면 이는 미분 불가능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. 이런 흐름을 약한^{weak} 흐름이라고 부르며, 적어도 둥근 원통 형의 특이점 근처에서 잘 존재할 수 있

는지 증명해야 합니다. 이 문제는 3차원에서 해결되었고[3], 4차원의 경우 $S^1 \times \mathbb{R}^2$ 모양의 특이점은 해결되었지만 [4], $S^2 \times \mathbb{R}^1$ 모양의 특이점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 한 겹 가설 multiplicity one conjecture의 증명입니다. 위에서 부등식(*)을 이용하여 특이점을 기준으로 조정된 흐름은 자가수축자로 수렴함을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조정된 흐름이 여러 겹의 자가수축자로 수렴할 위험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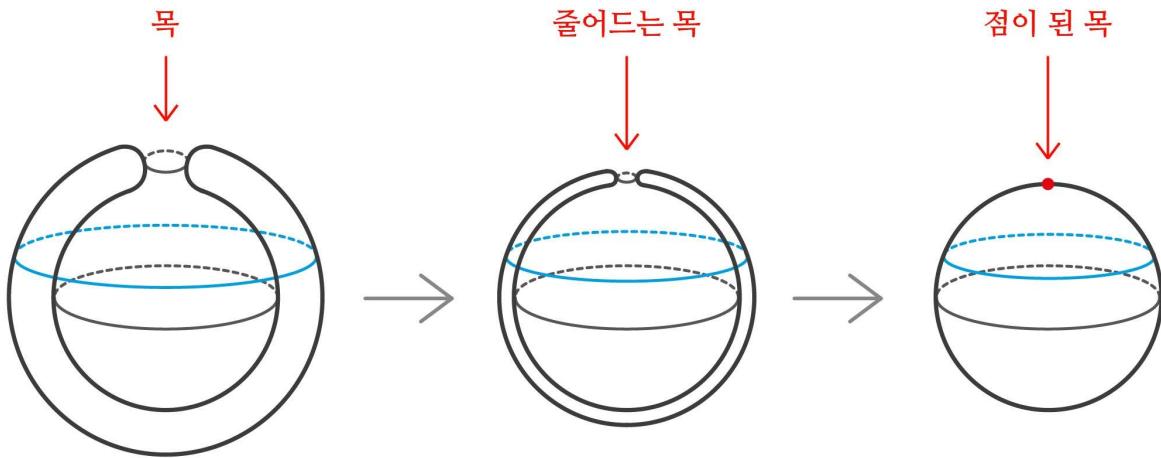


그림4 존재할 위험성이 있는 2장의 둑근 구로 수렴하는 조정된 흐름

최경수 제공, MIMONG

[그림4]처럼 두 장의 둑근 구가 가느다란 목^{neck}들로 연결되어 있고, 특이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두 장의 구면이 한 장의 구면으로 수렴하며, 목들은 점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이때, 목에서는 $\Delta_g \mathbf{x} + \frac{1}{2}\mathbf{x}$ 의 값이 0이 아니지만, 목이 점으로 수렴하므로 목 위의 적분값은 0으로 수렴해서, 부등식 (*)의 우변은 0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. 닫힌 흐름의 경우 이런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한 겹 가설입니다. 한 겹 가설은 3차원의 경우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습니다.[7,8] 리찌 흐름의 경우 닫힌 흐름은 반드시 한 겹의 특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모든 차원에서 페렐만 교수님께서 증명하였습니다.[10]

참고문헌

1. J. Bernstein and L. Wang. Closed hypersurfaces of low entropy in \mathbb{R}^4 are isotopically trivial. *arXiv:2003.13858*, 2020.
2. O. Chodosh and K. Choi and C. Mantoulidis and F. Schulze. Mean curvature flow with generic initial data. *arXiv:2003.14344*, 2020.
3. K. Choi and R. Haslhofer and O. Hershkovits. Ancient low entropy flows, mean convex neighborhoods, and uniqueness. *arXiv:1810.08467*, 2018.

4. K. Choi and R. Haslhofer and O. Hershkovits and B. White. Ancient asymptotically cylindrical flows and applications. *arXiv:1910.00639*, 2019.
5. M. Gage and R. Hamilton. The heat equation shrinking convex plane curves. *Journal of Differential Geometry*, 23(1): 69-96, 1986.
6. G. Huisken. Asymptotic-behavior for singularities of the mean-curvature flow. *Journal of Differential Geometry*, 31(1): 285-299, 1990.
7. H. Li and B. Wang. The extension problem of the mean curvature flow (I). *Inventiones mathematicae*, 218(3): 721-777, 2019.
8. H. Li and B. Wang. On Ilmanen's multiplicity-one conjecture for mean curvature flow with type-I mean curvature. *Journal of the European Mathematical Society*, to appear.
9. X. Nguyen. Construction of complete embedded self-similar surfaces under mean curvature flow, Part III. *Duke Mathematical Journal*, 163(11): 2023-2056, 2014.
10. G. Perelman. The entropy formula for the Ricci flow and its geometric applications. *arXiv math/0211159*, 2002.